17일(금) LH와 대회조직위원회의 선수촌 조성 기본협약 체결식에서 강창희 조직위원장(왼쪽)과 이한준 LH사장(오른쪽)이 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L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선수촌 조성에 나선다.LH는 지난 17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선수촌 조성 관련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회에 참가하는 150개국 대학생에게 LH 공공주택을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주최로 2년마다 홀수 해에 개최되며 18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및 6-3생활권의 공공주택 약 2300호와 부지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기본 협약 체결 이후 세부 협약 체결 추진 등이다.이를 통해 LH는 2027년 공급 예정인 세종시 내 통합공공임대주택 약 2300호를 선수 숙소로 제공한다. 조직위는 LH의 선수촌 제공을 위해 관계관 협의 및 발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LH는 지난 2012 여수엑스포(1442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3483호) 등에서도 LH 보유 주택을 활용해 행사 운영을 지원한 바 있다. LH는 향후 다양한 국가적 행사에서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가 보유한 자산과 역량을 활용해 국가적 행사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와 협업하겠다"고 밝혔다.